

## 적자가계유형분류에 따른 가계특성 변화 분석

### A Comparison of Household Characteristics by Deficit Types

양 세 정(Sejeong Yang)<sup>1</sup>, 이 은 화(Eunhwa Lee)<sup>2\*</sup>, 이 종 희(Jonghee Lee)<sup>3</sup>

<sup>1</sup>Department of Consumer & Housing Studies, Sangmyung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Human Environment Science (Major in Consumer Science), Sangmyung University,

<sup>3</sup>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economic status of deficit households.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from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in 2000, 2005, and 2010 conducted by the National Statistics Office (NSO). Deficit households were defined by those who had expenditures higher than their income. Among total households, the proportion of deficit households was 26.84% in 2000, 28.14% in 2005, and 27.15% in 2010. The average propensity to consume was 132.1 in 2005, which was higher than those in 2000 and 2010. Deficit households were classified into five types using cluster analysis: 1)overall-overconsumption group(33.07%), 2)basic needs group(26.33%), 3)transportation expenditure-dominated group(6.73%), 4)education expenditure-dominated group(27.63%), 5)health care expenditure-dominated group(6.24%). The overall-overconsumption group was the largest group of total households and the portion of this group among total households decreased by 4.97%p from 2005 to 2010. However, the education expenditure-dominated group increased by approximately 7.6%p over the period. It was also found that households in 2000 and 2010 were more likely to be in all five groups than households in 2005. Other major determinants of households with deficit were gender, age, number of family members, education level, dual income, home ownership, vehicle ownership, and income class.

---

▲주제어(Key words): 적자가계(deficit household), 가계유형(type of household), 가계소득(household income), 가계지출(household expenditure), 부채(debt), 지출구성비(consumption ratio), 소득계층(income class)

#### I. 서론

적자라는 것은 주어진 시점에서 가계수지가 마이너스라는 것을 의미한다. 들어오는 소득에 비해 나가는 지출이 더 많음으로써 가계순자산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생애주기설에 따르면 소비자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청·장년기 시기에만 소득을 축적할 수 있는 반면 지출은 일생동안 이루어지고 있다. 소비자는 자신의 소득과 지출의 패턴이 생애주기별로 다르게 구성되어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데 현 시점에서 소비지출이 가계의 소득을 넘어설 때 현금흐름을 원활하게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거나 새로운 부채를 얻기도 한다. 일시적으로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하

• 본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A2A03034595).

\* Corresponding Author: Eunhwa Lee, Department of Human Environment Science(Consumer Science), Sangmyung University, 20, Hongimun 2-gil, Jongno-gu, Seoul 110-743, Korea, Tel : +82-10-7223-0661, E-mail : eunhwa.lee0904@gmail.com

는 가계의 적자가 재정적으로 취약한 상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가계의 적자가 자주 발생하거나 또는 지속화 되면 소득과 지출의 문제에서 점차 부채의 문제로 확장된다. 현실에서 가계의 적자는 인생의 특정한 시기인 청년기와 노년기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관혼상제, 의료비 지출 등 때때로 지출되는 중요한 재무사건들이 적자를 유발하기도 한다. 기대수명의 증가와 함께 장기생존위험에 노출되어있는 현대인들은 특히 노년기에 생긴 적자의 문제가 부담스럽고 자산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만성적인 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 즉, 부채는 적자가 장기화 될 때 확대되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적자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가계적자와 관련된 연구들은 과소비(overspending) 또는 dissave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1993년에 미국에서 과소비가계의 과소비율을 분석한 연구가 있었으며(M. Bae, S. Hanna, & S. Lindamood, 1993) 그 이후로 관련 연구가 간헐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K. Charles, G. Li, and R. Schoeni(2006)는 미국 과소비가계의 비중과 과소비의 가능성을 높이는 변인들을 살펴보았으나 응답자에게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였는지 질문하여 과소비 여부를 판단하였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된 과소비가계라고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 과소비현상과 함께 적자가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잠시 있었으나 과소비행위의 원인 규명에 중점을 두었으며(M. Park, S. Lee, & M. Bae, 1996), 이후에도 가계수지 분석을 통한 적자가계 관련 연구가 많지 않다.

통계청에서 매년 가계동향조사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적자가계의 비율을 발표하고 있는데, 2인 이상 도시 적자가계의 비율은 처음 조사가 시작된 1990년에 17.4%이었던 것이 2000년 들어 계속 2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22.5%를 차지하였다. 이는 최근 20년 동안 우리나라 적자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가계의 적자는 다양한 소득계층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분위에 해당하는 최저소득층의 경우 적자가계의 증가율이 두드러지게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NSO website).

J. Won(2003)은 소득계층을 4개로 구분하여 적자가계와 흑자가계의 원인 파악을 피한 바 있으며, J. Lee와 S. Yang(2014)의 연구 또한 소득계층별로 적자가계의 가계수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소득계층에 따른 적자의 특성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적자가계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유형별 특징을 분석한 연구가 있었는데, 과소비 가계와 그렇지 않은 가계로 구분하여 경제구조를 비교하거나

과소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M. Park et al, 1996; S. Lee, 2005)하거나, 또는 가계의 지출패턴을 파악하여 가계의 적자를 유발하는 원인들을 찾고자 노력한 연구들이 있었다(S. Lee & Y. Sung, 2007; S. Yang, 2010). 특히 S. Yang (2010)은 적자가계를 지출비목구성비를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통해 유형화시켰으며, 각 적자가계 유형에 영향을 주는 가계의 경제규모와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을 규명하여 적자가계를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가계의 가계수지는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고, 소비자의 지출패턴이 여타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단일연도의 적자가계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들을 잘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적자 특성과 원인을 분석하여 적자가계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적자가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들이 가계수지의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통계청에서 매년 조사하는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중 최근 5년 단위로 적자가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000, 2005, 2010년 세 개 년도만을 선택하여 적자가계의 이해를 동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적자가계의 원인이 다양할 것으로 예상하여 연도변화에 따른 적자가계의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 동시에 각 적자가계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인구적 특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적자가계 변화추이를 예측하고 적자가계의 유형에 따른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적자가계 유형별로 바람직한 소비지출 패턴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적자가계에 필요한 재무교육과 상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유형을 선정함으로써 가계가 더욱더 효과적으로 재무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 II. 선행연구 고찰

적자가계에 관한 연구는 적자가계의 경제특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적자가계의 결정요인, 적자가계의 유형 분석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소비지출패턴을 구분함으로써 적자가계유형을 나누어 각 유형에 대해 분석하였다. 선행연구 고찰은 적자가계에 관한 이론과 실증연구를 정리하였고 가계소비지출 유형에 관한 연구를 함께 고찰하여 본 연구의 분석방법에 참조하였다.

1. 적자가계에 관한 연구

가계수지 적자는 가계소비와 소득간의 관계로 설명되어 지며, 적자는 외부나 미래소득을 담보로 한 행동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경제학적 소비-소득이론들이 관련 이론으로 논의되어왔다. 가계의 소비와 저축에 대한 동기는 흔히 항상소득가설과 생애주기가설로 설명될 수 있다(A. Ando & F. Modigliani, 1963; M. Friendman, 1957). 항상소득가설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전 생애에 걸쳐 얻을 수 있는 기대소득인 항상소득에 비례하여 소비를 결정한다. 이렇게 소비가 항상소득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인 소득의 변화를 저축이나 대출을 통해서 흡수하여 소비의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이론에 의하면 가계적자는 일시적으로 현재소득이 항상소득에 비해 적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일시소득이 적을 때에도 소비지출은 항상소득에 근거해서 일정하게 지출되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며, 이와 반대로 일시소득이 많을 때 항상소득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소비지출에 의해 흑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생의 관점에서 볼 때는 상쇄되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가계적자는 합리적 의사결정의 단기적 결과로 보았다.

생애주기가설은 항상소득의 개념을 확대하여 소비의 자원을 노동소득과 자산으로 분리하였다. 일생동안 자산을

포함한 총소득을 사용하여 항상 일정한 수준의 소비지출을 유지함으로써 효용을 극대화 시킨다는 가정이었다. 보편적으로 한 개인의 소득의 흐름은 인생의 초년기에는 낮고 청·장년기에는 증가하였다가 노년기에 다시 줄어드는 주기를 보이기 때문에 청장년기의 소득은 초년기와 노년기의 지출을 위한 저축이 될 수 있는 것이며, 가계의 가계수지의 관점에서 보면 초년기와 노년기에는 적자가계가 그리고 청·장년기에는 흑자가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생애소득에 자산을 고려하는 경우 중·노년기에 축적된 자산이나 부채의 여부와 규모가 가계수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두 가설은 모두 가계의 소비는 평균 기대소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으며, 소비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가계는 적자일 때 부채행동을, 흑자일 때 저축행동을 한다고 보았다.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대출과 저축행동을 통해 소비의 흐름을 조절하여 효용을 극대화 시킨다. 그러나 가계의 적자문제가 언제나 인생의 초년기와 노년기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생애주기마다 생기는 다양한 재무사건들로 인해 가계의 소득흐름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노년기에 발생하는 적자는 만성적인 적자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계의 재정을 취약하게 만든다.

<Figure 1>은 생애주기가설과 항상소득가설을 토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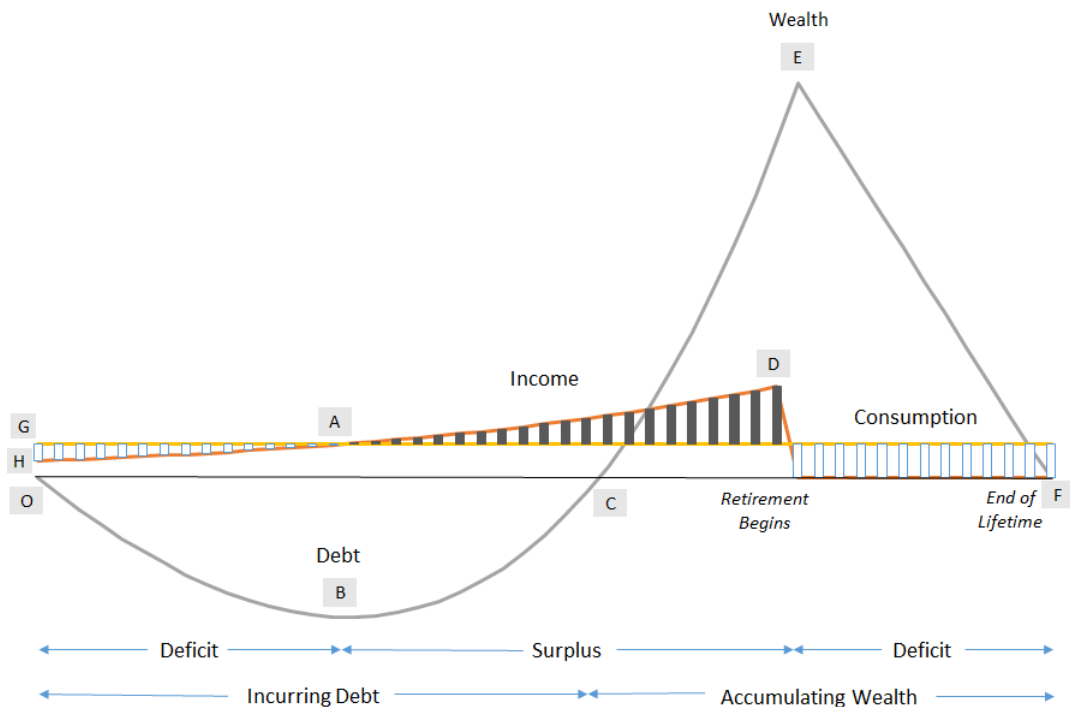


Figure 1. Income, Consumption, Debt, and Wealth path in Lifetime

하여 가계의 소득과 지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와 흑자 그리고 가계의 부채발생과 자산축적의 흐름을 정리한 것이다. 가계는 OF기간만큼의 lifetime이 주어졌고 소비는 항상 일정하게 OG만큼을 일생동안 지출하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생애주기상 사회초년기와 가족형성기에 해당되는 OA기간 동안 가계는 지출이 소득보다 많은 적자의 시기를 겪으면서 부채가 증가하여 소득과 지출이 동일해지는 시점인 A시기에는 부채금액이 가장 많아진다. 이후 소득이 지출을 초과하는 흑자기간인 AD가 은퇴시점까지 지속되며 마침내 C지점에서 부채가 0이 되게되며, 이후 자산을 축적하게 된다. 은퇴이후 가계는 다시 소득이 없는 적자의 시기를 경험하면서 C시기부터 축적해 놓은 자산을 은퇴이후의 소비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계는 적자-흑자-적자의 과정과 부채의 발생 그리고 자산축적의 생애주기를 경험하면서 가계의 원활한 소비흐름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초기의 적자가계 연구는 가계재무비율을 도입하여 적자가계를 구분하였다. 적자가계에 관한 최초의 실증연구는 미국의 과소비(overspending)를 살펴보기 위해 BLS Consumer Expenditure Survey의 1990년도 데이터를 분석한 M. Bae, S. Hanna, and S. Lindamood(1993)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R. Lytton, E. Garman, and N. Porter (1991)에서 다룬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소득에 대한 소비의 비율이 1이상인 경우를 과소비로 정의하였다. 미국가계의 40%가 과소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여타변수를 통제했을 때,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과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M. Park et al.(1996)는 1994년 도시가계연도를 이용하여 과소비가계와 과소비하지 않는 가계의 소비지출 패턴을 살펴보았다. M. Bae et al.(1993)의 연구와 같이 과소비가계는 소비수준이 소득을 초과하는 가계로 정의하여 소득대비 가계지출 비율이 1.0이 넘는 가계를 과소비가계라 하였다. 표본의 18%가 과소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소비율에 미치는 영향변수를 살펴본 결과 가구주의 연령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수입원수가 적을수록, 자가 소유하고 있는 가계일수록, 가계의 소득이 낮을수록 과소비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S. Yang(2010)은 2005년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가계지출이 가계소득을 초과하는 가계를 적자가계로 정의하였다. 조사대상 가구 중 25.3%가 적자가계였으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구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주 연령이 20대 이하인 가구보다 3-50대인 경우

의 가구들이, 노무직 가구보다 공무원이나 사무직 가구가, 주택이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가 적자가계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맞벌이 가계인 경우가 적자가계에 속할 가능성을 적게 하였다. 즉, 가족원수, 소득수준, 주택소유여부, 가장의 직업이 적자가계 유형에 속할지 여부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적자가 있는 가계뿐만 아니라 부채가 있는 가계도 함께 포함하여 가계의 경제구조를 파악하는 시도를 하였다. S. Lee(2005)은 2002년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였는데 가계지출이 가계소득을 초과하는 가계를 적자가계로, 1년 동안 부채가 유입이 되거나 부채상환을 한 가계를 부채가계로 정의하여 가계의 적자와 부채 문제를 동시에 분석하였다. 가계의 적자여부와 부채유무에 따라 과소비·부채가계, 일반부채와 무부채가계로 구분하여 가계경제구조를 비교하였고 이러한 가계유형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과소비·부채가계의 비율은 13.34%이었으며, 과소비를 충당하기 위해 약 89% 정도는 자산에서 11%는 부채에서 동원되고 있었다. 과소비·부채의 원인은 비경상지출인 대학교납입금, 자동차 구입, 교육비 송금이었으며, 이들의 지출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지출이 끝나게 되면 과소비·부채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교육비는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서 적지 않은 비용이 지출되는 만큼 단기에 걸쳐 지출규모를 축소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였다.

S. Lee and Y. Sung(2007)는 2002년도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적자부채가계의 지출구조를 파악하였다. 적자와 적자부채가계의 정의는 S. Lee(2005)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하였으며 단지 S. Lee(2005)의 과소비·적자가계는 적자부채가계로 명명하였다는 차이만 있다. 앞에서 설명되었듯이 S. Lee and Y. Sung(2007)은 가계를 5개로 유형화시켰으며, 그 중 과소비형을 비교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적자부채가계유형에 속할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찾기 위해 로짓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가계소득, 소득자수, 주택보유여부, 월부 및 외상, 가구주 성별, 가구주교육이 주요 영향요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의 연구들이 적자가계를 횡단적으로 분석했다면 종단 분석을 함께 시도한 연구가 일부 있었다. Y. Sung(2008)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2000년과 2002년도 두 기간 동안 가계의 적자를 횡단분석과 패널분석을 통해 동태적으로 살펴보았는데 가계적자를 일정시점에서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하였다. 먼저 가계의 적자 여부를 판단한 후에 가계의 소득과 지출의 변화를 파악하여 적자진입가계와 적자탈출가계로 구분한 후 적자의 진입과 탈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밝혀냈다.

2002년도 자료를 횡단으로 분석한 결과 가구주 연령, 교육수준, 가구원수, 직업, 가계소득, 부채 잔액이 적자가계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가계의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연령, 거주 지역, 가구원수, 가구주 직업, 배우자 직업, 가계소득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계의 적자진입과 탈출에 미치는 요인들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 적자진입을 막기 위한 정책과 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서로 달라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K. Charles et al.(2006)는 미국 가계의 적자 문제를 다양한 data를 활용해서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과소비(overspending)의 개념을 가계의 총지출이 세후소득을 초과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1999년과 2001년의 미국의 과소비가계는 15%에서 35%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각각 사용된 데이터에서 측정된 가계의 소득과 지출의 측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저소득층 가계, 소수인종, 교육기간이 짧을수록, 젊거나 연령이 매우 높은 경우에 과소비를 하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지역 국가간의 가계의 적자문제를 다룬 J. Blanc, A. Porpiglia, F. Teppa, J. Zhu, and M. Ziegelmeyer (2014)은 Household Finance and Consumption Survey (HFCS) 자료를 이용하여 총 62,521 가계의 저축행동과 신용제약에 대한 이론검증을 하였다. HFCS는 Eurosystem의 15개 중앙은행이 참여한 조사로 가계의 재무상태표와 소득, 연금, 직업, 증여, 소비측정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자세하게 수집되어 있으며 동시에 유럽지역에 있는 15개 국가들을 비교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응답자는 지난 12개월 동안의 가계지출이 그들의 평균 가계지출 뿐만 아니라 소득과도 동일했다고 주장하였다. 전체 가계의 약 11%가 지출이 소득보다 많았다고 하였는데, 프로빗 분석결과 가구주가 여성이고, 40대 이하인 경우, 이혼을 한 경우 이러한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자영업자 또는 비고용자, 은퇴한 가계는 과소비가능성이 낮았으며, 이와 비슷하게 가구의 소득과 순자산이 높은 가계일수록 과소비가계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생애주기가설을 입증할 수 있는 결과로써 젊은 가구주가 가계소득이 낮지만 이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함으로써 추가적인 대출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밖에 교육수준은 가계의 적자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적자가계의 전반적인 흐름과 특징들을 살펴본 연구들이 있었다. J. Won(2003)은 통계청의 2002년도 도시가계조사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여 소득분위별 가계수지를 적

자가계와 흑자가계로 구분하여 집단간 비교분석을 하였다. 소득분위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4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한계계층, 중위소득의 50-100% 미만은 서민층, 중위소득 100-150% 미만은 중산층, 중위소득 150% 이상인 계층은 고소득층으로 분류하였다. 각 소득계층별로 소득에서 가계지출을 차감한 가계수지가 양수이면 흑자가구로, 음수인 경우는 적자가구로 분류하여 두 집단간의 소득과 지출, 그리고 지출 항목별 금액과 비중을 비교하였다. 적자가구의 비중은 소득이 적은 집단일수록 높아지고 있었는데, 한계계층의 52.73%, 서민층의 26.02%, 중산층의 15.47%, 고소득층의 9.45%가 적자가구인 것으로 밝혀졌다. 적자가구와 흑자가구의 지출의 격차가 소득의 격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가계 적자의 원인이 지출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J. Park(2007)는 우리나라 도시가구 하위 10%인 최저소득층의 가계수지를 통계청의 도시가계연보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최저소득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2003년도 이후 소득이 크게 줄었으나 소비지출은 별로 줄어들지 않은 대신 부채를 늘리고 있었다. 최저소득층의 적자규모는 2003년 이전에는 약 20%정도였는데 2003-2004년에는 약 50%로 급증하였고, 2005-2006년에는 40%정도로 나타나 최저소득층의 만성적인 적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었다.

S. Hwang and W. Jeong(2013)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2003-2012년 자료를 분석하여 적자가계의 경제행위를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계소득에서 가계지출을 뺀 가계수지가 적자인 가구를 분석에 사용하였는데 적자가구의 비율은 평균 23.7%-26.1%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가계의 비율은 가구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그리고 60세 이상의 고령층 가계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교육, 교통, 보건, 오락·문화, 가정용품·가사서비스, 기타상품·서비스와 같은 선택재 소비규모와 가계수지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특히 가계의 적자는 자동차 지출을 포함한 교통지출과 관련이 있었다.

## 2. 가계지출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가계의 소비지출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일찍이 행해져 왔다. 초기의 연구들은 단일 품목이나 전체지출품목이 시대흐름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품목별 지출액과 지출구성비를 통해 살펴보고, 가계의 사회경제학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소비자를 구분하여 소비지출패턴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들이 있었다(C. Yoon, 1984; K. Kim & S. Lee, 1990; S. Yang, 1991; S. Park & Y. Kim, 1992; S. Moon & S. Joung, 1995; Y. Yun & S. Yang, 2001;

and etc). 이러한 연구들은 포괄적으로 전체가계의 지출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각각 소비자가 갖고 있는 가치관, 취향, 목적, 기호 등에 따른 소비지출패턴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Y. Joung, 1992).

가계소비지출은 그 항목이 갖고 있는 특징에 따라 유형화 시킬 수 있다. S. Yang(1991)은 1985년과 1990년도 도시가계연보자료를 이용하여 소득탄력성을 기준으로 소비지출항목을 열등재, 기본재, 준선택재, 선택재로 구분하였다. 열등재는 월세, 담배가 해당이 되고, 기본재는 공공교통, 외식 외 식료품, 이미용, 신발, 내의 등의 품목이 분류되었다. 준선택재는 식기 주방용품, 스웨터 및 셔츠, 가정용 가구 등이 포함되었고, 선택재에는 교양오락, 장신구, 개인교통 등이 해당이 되었는데 1985년도와 1990년도에 다른 소득탄력성을 보임으로 인해 시대에 따라 지출비목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계소비지출의 각 지출비목별 구성비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가계소비지출의 유형을 구분한 연구들이 Y. Joung(1992)의 연구를 필두로 시작되었으며, 그 이후 후속 연구들이 소비지출패턴을 도출하기 위해 이 방식을 주로 사용하였다. Y. Joung(1992)은 대구에 거주하는 주부를 면접조사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총소비지출액에서 각 지출비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4개의 유형으로 소비지출을 구분하였다. 식료품비-지배적패턴 가계가 4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로 주거비-지배적패턴(36%), 피복비-지배적패턴(12%), 교육비-지배적패턴(11%)의 순으로 나타났다. 로짓분석을 이용하여 소비지출패턴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살펴본 결과 소득수준, 주부의 연령, 주부의 교육수준, 취업유무, 주거지역이 주요 영향요인이었다.

I. Ju and S. Yang(1997)은 최초로 우리나라 전국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소비지출을 분석하였는데, 1990년 도시가계연보의 소비지출자료를 사용하였다. 통계청의 지출비목의 구성비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한 결과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계소비지출 유형은 교육교양오락비-우위적 유형(43.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생필품비-우위적 유형(25.0%), 기타소비지출비-우위적 유형(21.1%), 주거비-우위적 유형(7.1%), 교통통신비-우위적 유형(3.1%) 순으로 분류되었다. 가계소비지출유형의 결정요인은 가구소득, 가구원수, 가구주 나이, 도시화정도, 주거상태가 의미있는 변수였으며, 반면 가구주 직업과 교육수준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 Hwang and S. Lee(1999)은 11개 지역에서 우리나라 도시주부 4,000명을 대상으로 2009년 도시가계연도 9개 비목에 대한 각각의 월평균 지출액을 설문조사하였다.

지출구성비를 사용해 군집분석을 한 결과 소비지출패턴은 생필품비 우위적 패턴(48.8%), 교통·통신비 우위적 패턴(44.4%), 교육·교양·오락비 우위적 패턴(3.6%), 기타소비지출 우위적 패턴(3.2%)으로 나누어졌다. 소비지출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부인의 학력, 부인의 취업, 남편의 직업, 거주지역, 부채, 월평균저축액으로 밝혀졌다.

최근에 가계소비지출패턴에 대해 연구한 Y. Sung(2013)은 분석대상을 1인 가구로 한정하여 연령대별로 소비지출패턴을 분석하였다. 소비지출을 유형화하기 위해 통계청의 2012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각 비목의 소비지출비중을 기준변수로 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으로 구분하여 각 연령대별로 소비지출패턴을 범주화한 결과, 연령이 34세 이하인 청년층 1인가구는 활동지향형(48.9%)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음식숙박비지출 중심형, 주거비지출 중심형, 교통비지출 중심형의 순으로 분류되었다. 중장년층 1인 가구는 음식숙박비지출 중심형(38.2%), 식료품비지출 중심형(32.3%), 주거비지출 중심형(25.7%), 교통비지출 중심형(7.1%)로 범주화 되었다. 연령이 65세 이상인 노년층 1인가구는 식료품비지출 중심형(37.4%), 주거비지출 중심형(22.5%), 균형지출형(22%), 보건비지출 중심형(18%)으로 구분되었다.

특정계층의 가구에 초점을 두고 가계지출을 유형화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는데, 그 중 적자가계의 소비지출을 유형화 시킨 S. Yang(2008)은 소비지출비목의 구성비를 특성변수로 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5개의 적자가계 유형을 도출하였다. 과소비형적자가계가 58.5%로 가장 높았고, 교육비형이 17.8%, 보건의료비형이 10.2%, 생계형이 7.0%, 송금형이 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이면서 부채인 가구만을 추출하여 분석한 S. Lee and Y. Sung(2007)은 2002년도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적자부채가계를 유형화하기 위해 먼저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추출된 요인의 요인점수를 기준으로 다시 군집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적자부채가계는 생계형(28.3%), 과소비형(23.9%), 자동차구입형(21.6%), 교육형(19.8%), 내구재구입형(2.7%), 기타(2.25%), 부채형(1.35%)으로 유형화되었으며, 최종 분석에는 빈도가 매우 낮은 하위 3개 군집이 제외되었다.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가계의 소비지출행태를 토대로 적자

가계를 유형화하고 시대별 흐름에 따른 적자가계 유형의 특성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1> 적자가계의 유형은 어떻게 나누어지며 연도별 집단추이 분포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2> 적자가계 유형별 사회인구적 특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3> 적자가계 유형별 가계경제구조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4> 적자가계의 각 유형에 속할 가능성을 결정짓는 요인은 무엇인가?

2. 분석자료

본 연구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원자료(raw data)를 이용하였다. 연도별 흐름에 따른 적자가계 유형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2000년, 2005년, 2010년 등 세 개 년도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가계동향조사는 196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가계를 대상으로 하여 확률비례추출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고 소득과 지출, 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포함하였다. 가구의 실태에 관한 조사는 조사원의 면접조사를 통해 얻어지며, 가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각 가계에서 매달 가계부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조사된다. 원래 도시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03년부터 가구의 거처를 읍면부 지역까지 포함하면서 명칭을 「도시가계조사」에서 「가계조사」로 변경하였다. 2006년부터는 1인가구를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조사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2008년부터 조사명칭이 「가계동향조사」로 변경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적자가계유형의 특성 추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2000년, 2005년, 2010년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연도별 비교를 위하여 3개 연도 모두 도시가계, 2인 이상 가구만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즉 2005년과 2010년도 자료에서는 읍면부 지역 가구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다시 2010년 자료에서는 1인가구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가계동향조사의 조사가구 수는 2000년, 2005년, 2010년에 각각 6,413가구, 11,367가구, 10,667가구였으나,

이 중 2인 이상 도시가구는 2000년 6,413가구, 2005년 9,338가구, 2010년 7,415 가구로 총 23,166가구가 포함되었다. 이들 중 가계지출이 가계소득을 초과하는 적자가구만을 추출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는데 적자가계는 2000년에 1,721가구, 2005년에 2,628가구, 2010년에 2,013가구로 총 6,362가구가 이에 해당되었다.

우리나라 적자가계의 비율은 2000년에 26.84%, 2005년에 28.14%로 다소 상승하였다가, 이후 2010년에 27.15%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약간씩의 변화를 보이나 25%를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네 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이 적자가계에 해당됨을 보였다.

3. 분석방법

1) 적자가계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적자가계를 가계지출이 가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가계소득은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을 모두 합한 것으로, 경상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포함되며, 비경상소득으로는 경조소득과 퇴직금 및 연금 일시금이 포함된다. 가계지출은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을 포함하였는데, 소비지출은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주거 및 수도광열,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등 12개 비목으로 구성되어졌다. 비소비지출은 조세, 연금, 사회보장과 이자비용, 이전지출이 포함되었다. 분석에 있어 가계소득과 가계지출의 세부 분류방법은 가계동향조사의 분류방식을 그대로 따랐다. 가계소득과 가계지출은 월평균 금액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begin{aligned} \text{적자가계} &: \text{가계지출}(\text{소비지출} + \text{비소비지출}) \\ &> \text{가계소득}(\text{경상소득} + \text{비경상소득}) \end{aligned}$$

2) 자료분석

연도별 흐름에 따른 적자가계 유형의 특성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2000년, 2005년, 2010년 세 개 년도의 가계

Table 1. Number of Selected Samples in 2000, 2005, and 2010 (sample size)

Year	All households	Urban households	Two or more person households	Deficit households	Proportion of deficit households
2000	6,413 households	6,413 households	6,413 households	1,721 households	26.84%
2005	11,367 households	9,338 households	9,338 households	2,628 households	28.14%
2010	10,667 households	8,492 households	7,415 households	2,013 households	27.15%
Total	28,447 households	24,243 households	23,166 households	6,362 households	27.46%

동향조사 원자료 중 적자가계만을 추출한 후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은 관측대상들 간에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는 관측치들을 묶어 군집을 형성하는 방법으로(I. Cho, 2005), 본 연구에서는 소비지출비목 12개와 비소비지출비목 3개를 포함한 총 15개 비목의 지출구성비를 관측변수로 사용하였다. 적자가계 유형은 각 소비지출항목이 전체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중심으로 하여 군집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적자가계의 소비지출패턴을 말한다. 소비지출비목들에 대해 유사한 지출구성비를 나타내는 가구들끼리 묶여진 형태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분류된 적자가계 유형별 가계지출구성비, 가계수지상태, 자산의 증감상태,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GLM(General Linear Models)과 카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개의 다른 연도에서 가계소득과 지출을 비교하기 위해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였다. 2010년도 CPI를 이용하여 2000년과 2005년 수치들을 2010년 실질가격으로 환산한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2000년 수치×1.37, 2005년 수치×1.16).

군집분석 결과 추출된 군집들이 각각의 군집에 속한 확률에 대한 영향요인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때 종속변수는 적자가계 여부로 하여 군집분석 결과 얻어진 적자가계의 각 유형과 흑자가계로 구성되기 때문에 적자가계에 속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로 구분된다. 즉, 종속변수가 적자가계여부인 이항변수(Binary Variable)로 되어 기준집단인 흑자가계와 비교했을 때 각 유형별 적자가계 집단에 속할 확률을 알아보기 위해 적자가계 유형의 수만

큼 아래의 로짓모델(Logi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D_i$ 는 가계의 적자여부의 긍정적인 확률을 나타내는 로지스틱 함수이며,  $P_i/(1-P_i)$ 는 적자가계여부의 긍정적인 확률에 대한 odds ratio이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  $x_j$ 는 선행연구(S. Hwang & W. Jeong, 2013; S. Lee, 2005; S. Lee & Y. Sung, 2007; J. Park, 2007; Y. Sung, 2008; J. Won, 2003; S. Yang, 2010)를 토대로 적자가계유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변수들이 포함 되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적자유형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연도변수도 추가하였다. 구체적인 logit 모델은 다음과 같다.

$$P_i = E(y_i = 1|x_i) = \frac{\exp(D_i)}{1 + \exp(D_i)}, 0 < P_i < 1 \quad (1)$$

$$D_i = \beta_0 + \sum_{j=1}^n \beta_j x_{ij}, -\infty < D_i < \infty \quad (2)$$

$$D_i = \ln\left(\frac{P_i}{1-P_i}\right) \quad (3)$$

$i$  : 적자가계유형,  $i = 1-5$   
 $x_j$  : 독립변수  $j$

위에서 제시한 적자가계결정 모델에 포함되는 독립변수 중 가구원수는 연속변수이며, 가구구성별, 맞벌이여부, 주택소유여부, 자동차소유여부 변수는 이분변수로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가구주연령은 30대 이하를 비교 집단으로 하여, 40대, 50대, 60대 이상을 더미변수형태로 포함하였다. 가구주교육수준은 중졸이하를 비교집단으로 하였고, 고등학교졸업, 대학교졸업 이상을 더미변수로 사용하였다. 가구주직업의 경우 근로자, 비근로자, 무직으로 구분하였으며, 무직을 비교집단으로 하였다. 가계소득계층은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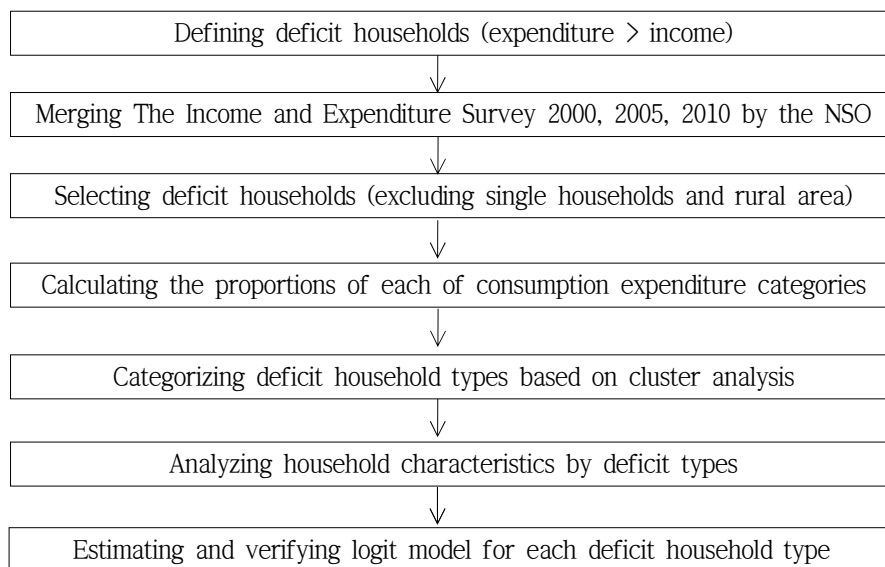


Figure 2. The Process of Methodology



Won(2003)의 소득계층 분류방법을 인용하였는데, 가계소득 중위값을 기준으로 하여, 중위소득의 50%미만의 계층을 한계계층, 중위소득 50-100% 미만의 계층을 서민층, 중위소득 100-150% 미만인 계층을 중산층, 마지막으로 중위소득 150%이상인 계층을 고소득층으로 구분하였으며, 한계계층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연도변수는 2000년을 비교집단으로 하고 2005, 2010년을 더미변수로 포함하였다.

IV. 연구결과

1. 적자가계 유형별 소비지출 구성비

<Table 2>는 적자가계에 대한 군집분석 결과 분석된 각 유형별 소비지출패턴을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0, 2005, 2010년의 자료를 모두 묶어서 각 비목별 지출비중이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가장 명확하게 설명되는 5개의 집단으로 적자가계를 유형화하였다. 유형별 소비지출의 특성을 살펴보고, 각 유형을 아래와 같이 명명하였다. 가장 많은 적자가계가 속한 1집단은 전체 적자가구의 33.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총 적자가계 6,362가계 중 2,104가계가 이 유형의 적자가계에 속하였다. 이 집단의 경우 타집단에 비해 의류와 신발, 가정용품

과 가사서비스, 음식과 숙박, 이전지출 등에 소비하는 비중이 높았다. 어느 한 가지 품목에 편중되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품목에 지출을 하고 있고, 선택재적 품목에 지출하는 경향이 높아 과소비형 적자가계집단이라 명명하였다.

두 번째로 빈도가 높은 유형은 4집단으로 교육비에 지출하는 비중이 타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은 가계들이었다. 이들 집단은 평균적으로 총 가계지출의 22.6%를 교육비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타집단의 교육비 지출 비중이 2.2-5.2%인 것과 비교했을 때 약 4배에서 10배 가량의 금액을 더 지출하고 있었다. 가계의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교육비 지출이 이들 가계를 적자가계로 만든 주된 요인으로 보이며 적자가계의 27.63%가 이 집단에 속해 있었다. 전체 적자가계의 1/4 이상이 과도한 교육비 지출로 인해 가계를 적자로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많은 적자가계의 유형은 2집단으로 적자가계의 26.33%를 구성하고 있다. 이 유형은 식료품과 비주류음료에 21.0%, 주거와 수도광열비에 19.1%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필수재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다는 특징이 있었다. 따라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로 인해 적자가 되는 경우로 보여져 생계유지형 적자가계로 명명하였다. 결국 적자가구의 대다수인 87.03%가 이 세 유형(1집단, 2집단, 4집단)에 해당된다.

네 번째 적자가계 유형은 3집단으로 적자가계의 6.73%

Table 2. Consumption Ratio of Deficit Households (%)

Variables	Cluster					F-value	
	Cluster1 All deficit households	Cluster2 Overall-over consumption	Cluster3 Basic needs	Cluster4 Transportation expenditure -dominated	Cluster5 Education expenditure -dominated		
Frequency	6,362	2,104	1,675	428	1,758	397	
Percentage	100%	33.07	26.33	6.73	27.63	6.24	
Food and non-alcoholic beverages	14.2	11.9	<b>21.0</b>	7.4	11.8	16.0	757.97 ***
Alcoholic beverages and tobacco	1.3	1.3	1.8	0.7	0.9	1.2	72.95 ***
Clothing and footwear	4.8	<b>5.8</b>	4.1	3.3	4.9	3.4	94.85 ***
Housing, water, electricity, gas and other fuels	10.5	7.1	<b>19.1</b>	4.7	7.9	9.4	950.87 ***
Household equipment and housekeeping services	3.1	<b>4.4</b>	2.8	1.8	2.2	2.7	65.57 ***
Health care	6.2	4.8	5.6	3.0	3.5	<b>30.7</b>	2704.54 ***
Transportation	9.6	8.7	6.5	<b>42.4</b>	6.6	5.2	5079.24 ***
Communication	5.2	5.3	5.7	3.2	5.4	4.2	71.62 ***
Entertainment and culture	4.3	5.3	3.3	3.1	5.0	2.3	95.60 ***
Education	9.0	4.9	2.6	5.2	<b>22.6</b>	2.2	3272.4 ***
Restaurants and hotels	8.8	<b>10.4</b>	7.6	6.5	9.3	5.3	179.04 ***
Other miscellaneous goods and services	5.9	<b>8.2</b>	4.9	4.3	4.9	4.8	162.83 ***
Taxes, pension, and national pension	5.8	<b>7.3</b>	4.1	6.6	5.7	3.7	126.02 ***
Interest expenses	2.1	<b>3.3</b>	1.4	1.3	1.9	1.2	47.71 ***
Transfer expenditure	9.2	<b>11.4</b>	9.6	6.5	7.3	7.6	84.05 ***

\*p < .05, \*\*p < .01, \*\*\*p < .001

를 차지하여 적은 사례수가 해당이 되지만, 교통비에 지출하는 비중이 42.4%로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특징이 있는 집단이었다. 다른 집단의 교통비지출 비중이 5.2%-8.7%인 것과 비교한다면 현저하게 많은 지출이 자동차 구입비를 비롯하여 자동차 유지비, 연료비, 주차료, 통행료 보험료와 기타 운송비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이 이 집단의 적자를 야기시킨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구입이나 유지에 따른 일시적인 큰 규모의 지출로 인한 적자일 가능성이 크다.

전체 적자가계의 6.24%를 차지하는 것은 5집단으로 보건비 지출이 과다한 집단이었다. 보건비에 지출되는 비용이 가계소비 지출의 30.7%에 이르는 가구로 의료 서비스와 보건의료용품 구입과 의약품에 지출하는 비용이 가계 적자의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적자가계 유형별 분포 추이

<Table 3>은 적자가계 유형의 연도별 분포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2000년, 2005년, 2010년의 기간 동안 적자가계 유형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과소비형 적자가계인 1집단의 비율은 2000년 34.28%에서 2010년 29.81%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 긍정적인 현상으로 평가된다. 반면 교육비과다지출형 적자가계인 4집단의 경우는 2000년 23.30%에서 2005년 27.97%, 2010년 30.90%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과다한 교육비 지출이 가계적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계유지형 적자가계집단으로 평가되는 2집단의 경우는 2000년 28.94%에서 2010년 24.49%로 줄어드는 추세이나 여전히 전체 적자가계의 1/4를 차지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보건의료비과다지출형 적자가계는 모든 연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

Table 3. Distributions of Deficit Households in 2000, 2005, and 2010 % (sample size)

Survey year	All deficit households	Cluster1	Cluster2	Cluster3	Cluster4	Cluster5	χ <sup>2</sup>
		Overall-over consumption	Basic needs	Transportation expenditure -dominated	Education expenditure -dominated	Health care expenditure -dominated	
2000	27.05 (1,721)	34.28 (590)	28.94 (498)	8.37 (144)	23.30 (401)	5.11 (88)	64.11***
2005	41.31 (2,628)	34.78 (914)	26.03 (684)	5.67 (149)	27.97 (735)	5.56 (146)	
2010	31.64 (2,013)	29.81 (600)	24.49 (493)	6.71 (135)	30.90 (622)	8.10 (163)	
Total	100.00 (6,362)						

\*p < .05, \*\*p < .01,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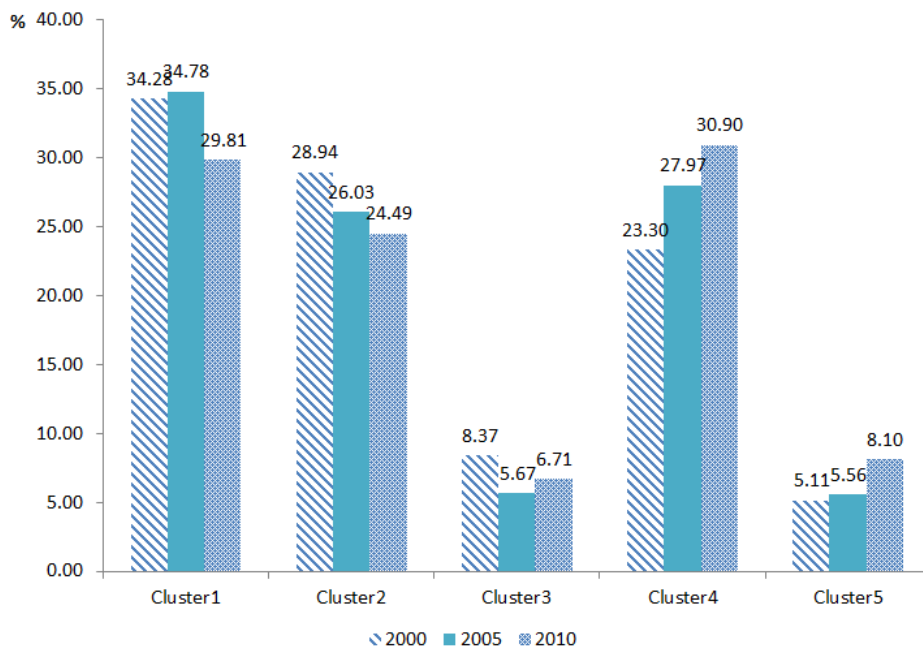


Figure 3. Percentage of Deficit Households in 2000, 2005, and 2010 (%)

라 점차 증가하여 2000년 5.11%, 2005년 5.56%, 2010년 8.10%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제도의 보완 등 관련복지제도의 보완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비 지출은 가계수지 건전성에 중요한 영향요인이었다.

3. 적자가계유형별 주요 경제수지

<Table 4>와 <Table 5>는 적자가구 유형별로 가계소득과 지출의 규모를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전체적자가계의 가계소득은 2000년에 평균 2,082,959원이었고 이후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가계 유형에 따라 가계소득 수준은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교통비과다지출형 적자가계집단이 가장 높은 가계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으로 2000년에 3,456,998원이었는데 2010년에 큰 폭으로 늘어 4,352,072원이 되었다. 생계유지형 적자가계집단과 보건의료비과다지출형 적자가계집단은 저소득층이었으며, 특히 생계유지형 적자가계집단은 2010년에 가계소

득이 1,128,414원으로 2000년의 1,348,707원에 비해 더욱 줄어들어 이들 집단의 빈약한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가계지출은 가계소득의 상승과 함께 거의 모든 집단에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적자가계의 가계지출이 2,664,165원에서 2,923,825원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2010년에는 2,989,758원으로 소폭 상승해 이전보다 소비지출 상승률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적자액의 규모를 보여준 <Table 6>에 의하면 적자가계의 적자규모는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유지형 적자가계집단을 제외한 모든 적자유형에서 2005년 적자금액이 가장 많은 편이었고, 연도에 따라 적자금액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교육비과다지출형과 교통비과다지출형이었다. 교육비과다지출형의 경우 2005년도에 709,052원 지출이 더 초과하였으며, 2010년에 626,908원, 2000년에 444,266원의 수치를 보여 2000년, 2010년, 2005년 순으로 적자규모가 많았다. 교통비과다지출형은 여타 유형에 비해 적자금액이 현격하게

Table 4. Incomes of Deficit Households in 2000, 2005, and 2010 (currency : won)

Year	All deficit households	Cluster1	Cluster2	Cluster3	Cluster4	Cluster5
		Overall-over consumption	Basic needs	Transportation expenditure -dominated	Education expenditure -dominated	Health care expenditure -dominated
2000	2,082,959	2,362,942	1,348,707	3,456,998	2,242,285	1,386,544
2005	2,213,626	2,571,779	1,169,955	3,626,979	2,550,425	1,723,083
2010	2,353,513	2,680,385	1,128,414	4,352,072	2,815,311	1,438,220
F-value	13.92***	6.55***	8.98***	7.73***	20.00***	3.45*

\*p < .05, \*\*p < .01, \*\*\*p < .001

Table 5. Expenditures of Deficit Households in 2000, 2005, and 2010 (currency : won)

Year	All deficit households	Cluster1	Cluster2	Cluster3	Cluster4	Cluster5
		Overall-over consumption	Basic needs	Transportation expenditure -dominated	Education expenditure -dominated	Health care expenditure -dominated
2000	2,664,165	2,965,958	1,830,244	4,659,400	2,686,551	1,993,068
2005	2,923,825	3,285,329	1,637,146	5,431,101	3,259,477	2,440,164
2010	2,989,758	3,297,206	1,573,898	5,918,549	3,442,219	1,988,113
F-value	14.06***	5.86***	6.48***	6.72**	29.79***	5.04**

\*p < .05, \*\*p < .01, \*\*\*p < .001

Table 6. Surplus of Deficit Households in 2000, 2005, and 2010 (currency : won)

Year	All deficit households	Cluster1	Cluster2	Cluster3	Cluster4	Cluster5
		Overall-over consumption	Basic needs	Transportation expenditure -dominated	Education expenditure -dominated	Health care expenditure -dominated
2000	- 581,206	- 603,016	- 481,537	- 1,202,402	- 444,266	- 606,525
2005	- 710,199	- 713,550	- 467,190	- 1,804,121	- 709,052	- 717,081
2010	- 636,244	- 616,821	- 445,484	- 1,566,477	- 626,908	- 549,893
F-value	9.7***	2.39	0.32	4.96***	19.66***	2.00

\*p < .05, \*\*p < .01, \*\*\*p < .001

Table 7. Average Propensity to Consume in 2000, 2005, and 2010 (%)

Year	All deficit households	Cluster1	Cluster2	Cluster3	Cluster4	Cluster5
		Overall-over consumption	Basic needs	Transportation expenditure -dominated	Education expenditure -dominated	Health care expenditure -dominated
2000	127.9	125.5	135.7	134.8	119.8	143.7
2005	132.1	127.7	139.9	149.7	127.8	141.6
2010	127.0	123.0	139.5	136.0	122.3	138.2
F-value	1.23	1.98	0.97	3.07*	1.54	0.81

\* $p < .05$ , \*\* $p < .01$ , \*\*\* $p < .001$

높았으며 연도별로 금액의 차이를 보였는데, 2005년도가 가장 많은 1,804,121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2010년에 1,566,477원, 2000년에 1,202,402원이 적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Table 7>은 적자가계유형별로 평균소비성향을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평균소비성향은 2000년에 127.9%, 2005년에 132.1%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감소하여 2010년에 127.0%이었다. 전 적자가계유형에서 2005년의 평균소비성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보건의료비과다지출형, 교통비과다지출형, 생계유지형 적자가계가 130% 후반대의 높은 평균소비성향을 보였다. 선택형 적자가계유형이라 볼 수 있는 과소비형과 교육비과다지출형 적자가계는 2010년 120% 초반대의 평균소비성향을 보였는데 이는 2005년에 128%대의 평균소비성향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다.

#### 4. 적자가계 유형별 사회경제적 특성

<Table 8>은 적자가계의 각 소비지출에 대한 전체가계 지출의 비중에 대한 군집분석의 결과로 각 유형별 사회경제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앞서 <Table 4> - <Table 7>까지의 적자가계 유형별 주요경제수지와 함께 비교하면 적자가계 유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과소비형 적자가계인 1집단의 경우 남성가구주의 비율이 80.4%로 타집단에 비해 높았고, 가구주연령은 44.48세로 젊은 편이었다. 상대적으로 가구주가 고학력인 편이었는데 대학교 졸업(전문대포함)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구주가 37.0%이었다. 가구주 직업이 근로자인 가구가 52.3%이었고, 맞벌이 가구가 22.9%였으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계가 66.8%, 자동차를 소유한 가계가 72.0%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소비형 적자가계의 소득계층별 분포를 살펴보면 한계소득계층과 서민층의 비중이 여타 계층에 비해 높았으나, 비교적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분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과소비형 적자가계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유발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생계유지형 적자가계인 2집단의 경우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30.2%로 다섯 집단 중 가장 높았으며, 평균 가구원수가 2.76명으로 낮은 편이었다. 가구주 연령이 52.23세로 높은 편이었고, 가구주가 중졸이하인 가계가 39.8%로 여타 집단에 비해 교육수준이 가장 낮았고, 맞벌이인 가계는 8.2%로 낮은 편이었다. 또한 무직인가구가 15.5%로 높았고, 자동차소유율이 35.6%로 가장 낮았고, 주택소유 비율이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계유지형 적자가계 내에서 소득계층의 최하위에 속하는 한계계층의 비율이 84.1%로 5개의 적자가계 유형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비과다지출형 적자가계인 3집단은 남성가구주 비중이 82.9%로 타 집단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고, 평균 가구주연령이 43.73세로 가장 낮았고, 가구주가 전문대 이상 졸업한 가계가 43.2%로 여타 집단에 비해 교육수준이 가장 높았다. 근로자비중이 61.2%로 가장 높았으며 맞벌이인 가계가 또한 32.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주택소유율이 71.7%로 타 집단에 비해 높은 편이었고, 자동차소유율이 90.7%로 매우 높았으며, 교통비과다지출형 집단 내에서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분포가 각각 28.7%, 32.9%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집단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육비지출이 높은 4집단의 경우 평균 가구원수가 3.75명으로 가장 많았고, 4인 가계의 분포가 46.7%로 여타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아 상대적으로 많은 자녀수가 이 집단이 교육비에 중점적으로 지출을 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비과다지출형 집단 내에서 가장의 연령이 40대인 경우가 절반 이상이였으며(55.6%),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3집단인 교통비과다지출형보다 낮고 소득계층 또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 자녀교육비 지출이 선택적인 성격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예상할 수 있듯이 보건의료비과다지출형 적자가계는 평균연령이 57.62세로 가장 많았고, 2인 가계의 비중이 가장 높은 약 59%였으며,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중학교 이하인 경우가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집단에 비해서

Table 8. Characteristics of Deficit Households by Cluster (%)

Categorical Variables	Sample size (6362)	All deficit households	Cluster1	Cluster2	Cluster3	Cluster4	Cluster5	F/ $\chi^2$	
			Overall-over consumption	Basic needs	Transportation expenditure -dominated	Education expenditure -dominated	Health care expenditure -dominated		
Gender	Male	4,849	76.22	80.4	69.8	82.9	76.0	75.1	69.21***
	Female	1,513	23.78	19.6	30.2	17.1	24.0	24.9	
	Mean(n)		3.26	3.32	2.76	3.44	3.75	2.66	253.52***
Family size	Two-person	1,918	30.15	24.5	53.3	20.8	10.7	58.7	1106.47***
	Three-person	1,722	27.07	31.7	24.0	30.8	24.8	21.4	
	Four-person	2,040	32.07	33.2	17.9	37.2	46.7	15.6	
	5 or more households	682	10.72	10.6	4.8	11.2	17.8	4.3	
	Mean(years)		47.40	44.48	52.23	43.73	44.89	57.62	198.34***
Age	~39	1,879	29.53	38.8	25.6	42.3	22.0	16.9	1431.93***
	40s	2,092	32.88	28.8	19.2	29.4	55.6	15.9	
	50s	1,187	18.66	21.5	16.5	19.4	17.7	16.1	
	60~	1,204	18.92	10.9	38.8	8.9	4.7	51.1	
Education	Middle or less	1,649	25.92	19.7	39.8	18.9	16.5	49.9	488.91***
	High School	2,739	43.05	43.4	40.8	37.9	48.4	33.0	
	University or higher	1,485	31.03	37.0	19.4	43.2	35.2	17.1	
Employment	Wage earner	2,808	44.1	52.3	31.6	61.2	45.8	27.7	321.45***
	Non-wage earner	2,973	46.7	41.8	53.3	33.6	47.4	57.9	
	unemployed	581	9.1	5.9	15.5	5.1	6.8	14.4	
Dual income	Yes	1,265	19.88	22.9	8.2	32.2	27.3	7.1	297.12***
	No	5,097	80.12	77.1	91.8	67.8	72.7	93.0	
Home ownership	Yes	4,084	64.19	66.8	53.2	71.7	67.8	72.8	127.61***
	No	2,278	35.81	33.2	46.8	28.3	32.2	27.2	
Vehicle ownership	Yes	3,824	60.26	72.0	35.6	90.7	66.6	41.8	796.82***
	No	2,528	39.74	28.0	64.4	9.4	33.5	58.2	
	Mean(won)		2,222,540	2,544,189	1,210,874	3,798,498	2,573,858	1,531,526	440.96***
Household income class	Lowest class	3,169	49.81	38.4	84.1	12.9	35.1	70.8	1566.23***
	Low class	1,632	25.65	32.3	11.6	25.5	32.7	18.9	
	Middle class	950	14.93	18.0	2.9	28.7	21.2	7.1	
	High class	611	9.6	11.4	1.4	32.9	11.1	3.3	

\* $p < .05$ , \*\* $p < .01$ , \*\*\* $p < .001$

Table 9. Distributions of Deficit Households by Age Groups and Household Income Classes (%)

Categorical Variables	Sample size (6362)	All deficit households	Cluster1	Cluster2	Cluster3	Cluster4	Cluster5	$\chi^2$	
			Overall-over consumption	Basic needs	Transportation expenditure -dominated	Education expenditure -dominated	Health care expenditure -dominated		
Age	~39	1879	29.53	43.4	22.8	9.6	20.6	3.6	1431.93***
	40s	2092	32.88	28.9	15.3	6.0	46.7	3.0	
	50s	1187	18.66	38.2	23.3	7.0	26.2	5.4	
	60~	1204	18.92	19.1	54.0	3.2	6.9	16.9	
Household income class	Lowest class	3169	49.81	25.5	44.5	1.7	19.5	8.9	1566.23***
	Low class	1632	25.65	41.7	11.9	6.7	35.2	4.6	
	Middle class	950	14.93	39.8	5.2	13.0	39.2	3.0	
	High class	611	9.6	39.1	3.8	23.1	31.9	2.1	

\* $p < .05$ , \*\* $p < .01$ , \*\*\* $p < .001$

교육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약 14.4%의 가계가 무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맞벌이 가계의 비율이 가장 낮았고, 한계소득 계층이 70.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주택소유율이 72.8%로 여타 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자동

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계가 41.8%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은 가구원수가 적고, 연령이 높고, 직업이 없으며 또한 보건의료비지출이 높아 노년가구가 갖고 있는 전형적인 특성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Table 9>는 <Table 8>에서 설명되지 않은 연령대별 가계소득계층별 적자가계의 유형분포를 나타낸 표이다. 30대 이하 적자가계는 과소비형-적자가계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이하 가구주의 43.4%가 과소비형 적자가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복, 외식, 이진지출 등 생활에 꼭 필요하지 않은 선택재적 성향의 지출품목에 소비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생계유지형(22.8%), 교육비과다지출형(20.6%)의 순이었다. 40대 가구주의 46.7%는 교육비과다지출형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과소비형에 28.9%, 생계유지형에 15.3%가 포함이 되었다. 50대 가구주는 30대 가구주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는데, 과소비형이 38.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교육비과다지출형(26.2%), 생계유지형(23.3%)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연령이 60대 이상인 경우 54.0%가 생계유지형 적자가계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과소비형에 19.1%, 보건의료비과다지출형에 16.9%가 분포하고 있었다. 노인층의 절반 이상이 기

본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것이 결국 이들을 적자가계로 이끄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한계소득계층이 가장 많은 유형은 생계유지형(44.5%)이었고, 과소비형(25.5%), 교육비과다지출형(1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41.7%가 과소비형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교육비과다지출형에 35.2%가 포함이 되어 이 두 가지 유형이 저소득층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었다.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인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각 유형별 분포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과소비형과 교육비과다지출형에 많이 분포하여 중산층의 79.0%가 고소득층의 71.0%가 교육비와 의류, 외식, 기타 서비스 관련한 품목 등에 많은 지출을 하여 적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 5. 적자가계 유형별 소득과 소비지출 규모 비교

<Table 10>은 적자가계집단별 가계소득과 가계지출 규

Table 10. Incomes and Expenditures of Deficit Households

(currency : won)

	Cluster					F-value	
	Cluster1	Cluster2	Cluster3	Cluster4	Cluster5		
	All deficit households	Overall-over consumption	Basic needs	Transportation expenditure -dominated	Education expenditure -dominated	Health care expenditure -dominated	
Incomes(1)	2,222,540	2,544,189	1,210,874	3,798,498	2,573,858	1,531,526	440.96***
Ordinary income	2,112,164	2,385,769	1,152,393	3,584,991	2,502,138	1,396,818	446.96***
· Labor income	1,142,898	1,416,811	462,797	2,379,896	1,291,626	568,493	237.71***
· Business income	662,777	732,409	310,044	905,826	929,792	337,549	81.11***
· Property income	22,708	25,023	23,554	28,536	17,356	24,281	0.96
· Transfer income	283,781	211,526	355,998	270,733	263,364	466,495	29.79***
Non-ordinary income	110,376	158,420	58,481	213,508	71,720	134,708	41.99***
Expenditures(2)	2,874,445	3,199,159	1,675,941	5,325,214	3,193,449	2,155,457	461.29***
· Food and non-alcoholic beverages	326,082	339,301	300,456	344,234	340,675	279,948	32.98***
· Alcoholic beverages and tobacco	28,331	32,766	25,410	32,732	26,560	20,252	24.23***
· Clothing and footwear	142,353	187,541	70,642	173,753	162,246	83,493	175.46***
· Housing, water, electricity, gas and other fuels	250,497	215,758	344,073	215,771	229,047	172,218	57.45***
· Household equipment and housekeeping services	104,194	176,234	54,610	98,646	76,453	60,419	30.87***
· Health care	156,797	148,815	86,749	157,079	114,804	680,292	733.49***
· Transportation	340,732	267,022	108,716	2,330,789	215,728	118,378	1920.38***
· Communication	130,520	147,531	86,374	150,047	156,644	89,891	271.78***
· Entertainment and culture	134,039	178,312	55,731	164,002	165,890	56,446	122.03***
· Education	295,256	164,827	52,090	291,457	735,383	67,577	1239.03***
· Restaurants and hotels	248,802	312,301	129,947	328,927	294,025	127,095	380.21***
· Other miscellaneous goods and services	179,105	277,806	81,801	235,683	155,302	110,954	126.98***
· Taxes, pension, and national pension	195,197	256,782	75,139	383,658	202,281	88,310	189.11***
· Interest expenses	67,756	109,050	27,538	68,137	65,364	28,772	41.00***
· Transfer expenditure	278,061	385,112	176,666	350,298	253,046	171,412	93.21***
Surplus (1)-(2)	-651,905	-654,970	-465,067	-1,526,716	-619,591	-623,931	111.35***
Surplus rate <sup>1)</sup>	-29.3%	-25.7%	-38.4%	-40.2%	-24.1%	-40.7%	
APC <sup>2)</sup> (2)/(1)×100	129.3	125.7	138.4	140.2	124.1	140.7	

\* $p < .05$ , \*\* $p < .01$ , \*\*\* $p < .001$

1) Surplus rate = Surplus / Income \* 100

2) APC: Average Propensity to Consume

모를 나타낸 것이다. 적자가계의 평균 소득은 2,222,540원 이었으며, 가계지출은 2,874,445원으로 나타나 평균 651,905원의 적자액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평균소비성향이 129.3이었다. 3집단인 교통비과다지출형 적자가계는 월평균소득 3,798,498원으로 타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생계유지형 적자가계와 보건의료비과다지출형 적자가계는 100만원대의 가계소득 수준을 보여 저소득층 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소득원천을 살펴보면 소득의 50% 이상인 주요 소득원천이 근로소득인 가계는 과소비형, 교통비과다지출형, 교육비과다지출형 적자가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전체소득의 약 80%이상으로 대부분의 가계지출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충당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적자가계인 2집단-생계유지형과 5집단-보건의료비과다지출형을 보면 근로소득이 전체소득에서 37-38% 정도이었으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친 소득이 생계유지형은 63.3%, 보건비과다지출형은 5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두 집단은 타집단에 비해 이전소득규모가 전체 소득의 약 29-30%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다른 유형에 비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6. 적자가계 유형별 기타수입과 지출 규모

<Table 11>은 가계소득과 가계지출에서 제외된 기타수입과 기타지출을 분석하여 자산의 변동상태를 적자가계 유형별로 비교한 것이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정의한 기타수입은 실질적인 자산의 증감 없이 자산의 형태가 변함으로써 발생하는 현금수입을 말하며, 기타지출은 가계지

출 이외의 지출로서 현금으로 자산축적을 위해 지출한 금액과 차입금 상환 등 부채의 감소를 위해 지출한 현금을 포함한다. 전체 적자가계 현황을 살펴볼 때 신규부채규모는 월 평균 307,179원이었고, 부채상환금액은 613,355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모든 유형의 적자가계에서 신규부채 금액보다 부채상환금액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집단 중 적자규모가 가장 큰 과소비형의 경우 부채증가액이 504,459원으로 가장 컸고, 교통비과다지출형이 그 다음으로 444,981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이 가장 많은 적자가계는 교통비과다지출형으로 1,049,675원이었으며, 과소비형은 875,102원으로 그 다음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유지형은 적자가계는 부채의 증가에 비해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이 가장 적은 집단으로 평가되었는데, 부채가 227,192원 발생한 것에 비해 271,211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보건의료비과다지출형도 부채가 243,472원 생겼으나 부채 감소는 357,401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이 적은 집단으로 보인다.

기타수입과 기타지출의 세부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은 보유한 자산을 현금화시킨 규모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자산변동으로 인한 지출은 자산의 축적을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재해석시킬 수 있다. 이러한 개념으로 봤을 때 모든 집단에서 자산을 매각 또는 회수하여 현금화시킨 자산의 규모보다 투자를 위한 지출액이 더 많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가계의 저축총액은 전체 자산변동으로 인한 지출 중 성격이 다른 보증금제공과 기타자산형태의 변동을 제외한 저축 및 적금, 저축성보험료, 펀드, 유가증권구입, 부동산구입, 귀금속구입만을 포함하였다. 1집단인 과소비형 집단은 자산증식을 위한 저축 총액이

Table 11. Other Income and Expenditures of Deficit Households (currency : won)

	All deficit households	Cluster1	Cluster2	Cluster3	Cluster4	Cluster5	F-value
		Overall-over consumption	Basic needs	Transportation expenditure -dominated	Education expenditure -dominated	Health care expenditure -dominated	
Other incomes	822,598	1,330,130	523,835	1,131,496	475,733	596,294	9.42 ***
- Asset change incomes (3)	431,504	781,716	277,187	639,755	225,967	282,121	5.98 ***
- Debt incurring	307,179	504,459	227,192	444,981	213,802	243,472	4.13 ***
- Asset transfer expenditures	3,375	43,956	19,456	46,760	35,964	70,701	0.93
Other expenditures	1,524,101	2,327,143	766,607	2,329,762	1,263,077	751,446	20.53 ***
- Asset changes expenditures (4)	889,356	1,419,022	467,130	1,257,224	680,888	390,233	9.12 ***
- Debt reducing expenditures	613,355	875,102	271,211	1,049,675	577,659	357,401	48.75 ***
- Asset transfer expenditures	21,389	33,019	28,265	22,863	4,531	3,812	2.01
Total savings <sup>1)</sup>	707,047	1,094,029	401,872	872,172	586,898	297,748	
Asset change surplus (3)-(4)	-434,769	-637,307	-189,944	-617,469	-454,921	-108,112	

\*p < .05, \*\*p < .01, \*\*\*p < .001

1) Total savings = saving & installment savings + Saving insurances + Funds + Securities purchase + Real estate purchase + Jewellery purchase

1,094,029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교통비과다지출형이 872,172원, 교육비과다지출형이 586,898원이었다. 반면, 보건의료비과다지출형은 297,748원으로 가장 적었고, 생계유지비형도 401,872원으로 낮았으며, 자산변동으로 인한 현금수입도 마찬가지로 과소비형, 교통비과다지출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분석해본 결과 자산의 현금화가 비현금화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7. 적자가계 각 유형에 포함될 확률에 대한 영향요인 : 로짓분석 결과

<Table 12>는 각 적자가계 집단에 포함될 확률에 대한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한 로짓분석 결과이다. 기준집단은 흑자가계로 하였으며, 비교집단을 적자가계의 각 유형으로 하였다. 따라서 다섯 번의 로짓분석이 시도되었고, 모형의 우도비 검정결과 5개의 모든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p < .05$ ) 밝혀졌다. 과소비형 적자가계에 속할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가구주성별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변수가 일정하다고 보았을 때 2000년에 비해 2005년이 과소비형 적자가계에 속할 확률이 1.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구주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동차와 주택을 소유한 가계가 과소비형 적자가계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가구주 연령은 가구주 연령이 50대 이상인 가계는 과소비형 적자가계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반면 60대 이상인 경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가 직업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계의 경우, 그리고 한계계층에 비해 서민층, 중산층, 고소득층 가계인 경우 과소비형 적자가계에 속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형 적자가계에 속할 가능성은 2000년도에 비해 2005년도에 비해 1.2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구주가 고등학교 졸업일 경우,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생계형 적자가계가 될 확률이 높았다. 가구주 연령의 경우 과소비형 적자가계와는 다르게 가구주가 60대 이상인 경우 생계형 적자가계에 포함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었고, 반대로 여성이 가구주이거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생계형 적자가계에 속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Table 12. Determinants of Households with Deficits: Logistic Regression

Surplus households vs. Independent variables (reference groups)	Cluster1		Cluster2		Cluster3		Cluster4		Cluster5	
	Overall-over consumption		Basic needs		Transportation expenditure -dominated		Education expenditure -dominated		Health care expenditure -dominated	
	B	Odds ratio	B	Odds ratio	B	Odds ratio	B	Odds ratio	B	Odds ratio
Survey year (2000)										
2005	0.233***	1.262	0.209**	1.232	-0.419***	0.658	0.419***	1.520	0.302*	1.352
2010	0.023	1.023	0.186	1.204	-0.328**	0.720	0.613***	1.846	0.610***	1.841
Female (Male)	-0.005	0.995	-0.140*	0.870	0.315*	1.371	0.398***	1.489	-0.324*	0.723
Number of families	0.165***	1.179	0.091*	1.095	0.010	1.010	0.570***	1.768	-0.061	0.941
Age (~39)										
40~49	0.058	1.059	0.051	1.052	-0.236	0.790	1.248***	3.485	-0.023	0.978
50~59	0.366***	1.442	0.142	1.153	-0.192	0.826	0.861***	2.365	-0.077	0.926
60+	-0.324**	0.723	0.217*	1.243	-0.226	0.798	-0.155	0.856	0.132	1.141
Education (Middle School)										
High School	0.433***	1.541	0.203**	1.225	-0.124	0.883	0.615***	1.849	-0.253*	0.777
University	0.668***	1.950	0.138	1.148	-0.071	0.932	0.924***	2.519	-0.454**	0.635
Employment (None)										
Wage earner	-0.431***	0.650	-1.320***	0.267	-0.169	0.844	-0.661***	0.516	-1.450***	0.235
Non-wage earner	-0.236*	0.790	-0.972***	0.378	-0.036	0.964	-0.227	0.797	-1.040***	0.354
Dual Income (Single)	-0.287***	0.751	-0.550***	0.577	-0.120	0.887	-0.282***	0.754	-0.858***	0.424
Vehicle ownership (None)	0.927***	2.526	0.349***	1.418	1.895***	6.651	0.499***	1.647	0.497***	1.644
Home ownership (None)	0.291***	1.338	-0.234***	0.791	0.219	1.245	0.330***	1.390	0.394**	1.483
Income (Lowest class)										
Low class	-1.045***	0.352	-2.315***	0.099	-0.258	0.772	-1.086***	0.338	-1.463***	0.232
Middle class	-2.025***	0.132	-3.803***	0.022	-0.454**	0.635	-2.066***	0.127	-2.513***	0.081
High class	-2.749***	0.064	-4.568***	0.010	-0.471**	0.624	-3.116***	0.044	-3.270***	0.038
Intercept	-2.306***		-0.331*		-4.4595***		-4.598***		-1.756***	
Chi-square	1484.677***		4064.277***		182.9789***		2034.51***		948.8365***	

\* $p < .05$ , \*\* $p < .01$ , \*\*\* $p < .001$



주거를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지출되는 전세 및 월세의 비용이 이 집단을 적자가계로 이끄는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가구주가 직업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계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득계층이 높은 집단이 생계형 적자가계에 포함될 확률이 낮았다. 예를 들면, 맞벌이 가계는 비맞벌이 가계보다 0.6배 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비과다지출형 적자가계는 여타 다른 유형과는 다르게 2000년도와 비교했을 때 2005년과 2010년에 포함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가구주의 경우 이 유형에 속할 확률이 약 1.4배 높았으며, 특히 자동차를 소유한 가계의 경우 6.7배 정도 교통비과다지출형 적자가계로 될 가능성이 높았다. 한계계층보다 중산층과 고소득층이 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다. 한편, 가구원수, 연령, 교육수준, 가구주직업, 맞벌이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은 교통비과다지출형 적자가계를 결정짓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비과다지출형 적자가계는 2000년에 비해 2005년이 1.5배, 2010년이 1.8배 이상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교육비로 인한 적자가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여성가구주의 경우 교육비과다지출형 적자가계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었는데, 이는 여성이 주로 자녀와 관련된 육아와 교육 등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추가적인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구원수가 한명 늘어날수록 1.8배, 가구주가 40대 인 경우 3.5배, 50대인 경우 2.4배 정도 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교육비 지출이 늘어나는 자녀학령기 가계와 자녀의 수가 많은 경우에 과다한 교육비 지출로 인한 가계적자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적자가계가 될 확률이 높았는데, 중학교이하 가계에 비해 고등학교 이상 가계가 1.8배, 대학교이상 가계가 2.5배 교육비과다지출형 가계에 속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었다. 가계가 주택과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맞벌이가계와 가구주가 직업이 있는 경우는 (-)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소득계층의 경우 한계계층에 비해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가계가 교육비형 적자가계에 속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비과다지출형 적자가계는 2000년도보다 2005년이 1.4배, 2010년이 1.8배 정도 더 속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교육수준이 고등학교와 대학교졸업 이상인 경우 이 유형의 집단에 속할 확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가 직업이 있는 경우, 맞벌이가계와 소득계층이 높은 경우 보건의료비과

다지출형에 포함될 확률을 높이고 있었다. 가구원수와 가구주 연령의 경우 유의미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 60대 이상 가계에서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보건의료비의 과다지출이 적자의 원인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소득과 관련된 변수들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 볼 때 각 적자가계 유형에 미치는 가계의 특성변수들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유형에서 2000년도에 비해 2005년도가 적자가계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었으나 교통비과다지출형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가계소득의 경우 적자가계유형을 결정 짓는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입증되었는데 소득계층이 높은 집단이 모든 유형의 적자가계에 속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비슷하게 가계의 경제수준에 영향을 주는 맞벌이가계와 가구주가 직업이 있는 경우도 적자가계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 V.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적자가계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 유형에 따른 경제 및 사회학적 특징들을 살펴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적자가계유형의 변화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적자가계는 가계지출이 가계소득을 초과하는 가계로 정의하였다. 연도의 흐름에 따른 적자가계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2000년, 2005년, 2010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자료의 균형을 위해 도시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의 가계만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2인 이상 도시가계 23,166가구 중 적자가계는 6,362가계로 27.46%였다. 적자가계의 비율은 2000년 26.84%에서 2005년 28.14%로 상승하였다가 2010년 27.15%로 하락하는 추이를 나타내었다. 적자가계의 가계소득 평균은 2,222,540원이었고 이들은 평균적으로 2,874,445원을 매달 지출함으로써 651,905원의 적자를 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계소득의 29.3%를 초과하여 소비했고, 초과 소비지출액 및 적자율은 2005년에 가장 큰 규모를 보였으며, 2010년 자료에서는 다시 감소하여 2000년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비지출패턴을 중심으로 적자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소비지출구성비에 근거하여 적자가계 유형을 5개로 구분하였다. 1집단인 과소비형 적자가계가 33.0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집단 교육비과다지출형 27.63%, 2집단 생계유지형 26.33%, 4집단 교통비과다지출형 6.73%, 5집단 보건의료비과다지출형이 6.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자가계 유형의 분포는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교육비과다지출형 적자가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비로 인한 가계의 적자문제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반대로 생계유지형 적자가계는 2000년에서 2010년으로 오면서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가계 유형별 소득과 지출의 규모를 살펴보면 과소비형, 교통비과다지출형, 교육비과다지출형은 점차 소득과 지출 모두 증가하였고, 반대로 생계유지형은 소득과 지출이 모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평균소비성향을 살펴보면 보건의료비과다지출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타 연도에 비해 2005년도의 평균소비성향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특히 교통비과다지출형은 2005년도에 149.7%를 보였다. 소득과 지출이 모두 줄어들었지만 가계는 소득의 감소분에만 따라 지출을 알맞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는 적게 지출규모를 감소시키고 있어 듀젠베리가 주장한 튼니효과 가능성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동일집단을 연도별 흐름에 따라 비교한 연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패널데이터를 통한 가설의 입증에 필요하다.

셋째, 적자가계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과소비형 적자가계는 몇 가지 지출비용에 집중해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피복, 신발, 가사용품, 외식, 세금 등 주로 선택재적 성향이 강한 품목에 소비하는 집단이었다. 또한 타 집단에 비해 이자비용과 이전지출에 높은 비중의 금액을 지출하고 있어서 주택 및 대출관련 지출이 많고 자녀에게 송금되는 비용과 노부모님을 위한 생활비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평균소비성향은 타 집단에 비해 높지 않아 흑자가계로 전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지출품목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소비습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재무교육이 필요한 집단이라 생각된다. 교육비 지출로 인해 생긴 적자가계도 27.6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한계계층과 저소득층의 비중이 2/3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소득규모에 비해 무리하게 자녀의 교육비에 많은 지출을 하는 집단으로 이를 위해 다른 품목의 지출은 전반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가구주의 연령이 40대가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4인가계의 비중이 가장 높아 생애주기에서 자녀 학령기에 해당이 되며 교육열이 높은 집단으로 보인다. 교통비과다지출형 적자가계는 6.73%로 다른 유형에 비해 해당되는 가계는 적었지만 높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지출의 규모가 커서 가장 높은 수치의 평균소비성향을 나타내었다. 이들 집단 내에서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비율이 각각 28.7%와 32.9%로 높았으며, 맞벌이가계의 비중이 여타 집단에 비해 높았고, 고학력이며, 연령이 낮다는 특징이 있었다. 특히 자동차를

소유한 가계가 90.7%인 것으로 나타나 자동차를 소유함으로써 인해 생기는 직접적인 비용과 더불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적인 지출이 가계적자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며, 높은 학력과 낮은 연령은 소비지출의 수요를 더욱 다양화 시켰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비지출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 생각되는 자동차구매비용을 분석시도할 수 없었다는 한계점이 있어 교통비과다지출형 적자가계가 자동차구매를 위한 일시적인 적자가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넷째, 가계의 경제규모 또한 적자가계유형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통비과다지출형 적자가계 집단은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이었고, 그 다음으로 교육비과다지출형, 과소비형 적자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전체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이었으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전체 소득의 80%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주요 소득원천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다른 유형에 비해 소득규모가 적은 생계유지형과 보건의료비과다지출형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이 전체의 60%에 못 미치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이전소득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전소득이 가계소득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집단은 여전히 적자인 것으로 나타나 이전소득이 생계를 유지하기에 적절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안정적인 수입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집단이 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적자가계의 가계지출은 가계소득을 초과하고 있다 즉, 원활한 소비지출을 위해서는 보유한 자산의 현금화나 부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가계의 가계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과 지출을 통해 분석한 자산의 현금화는 비현금화자산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적자가계의 자산의 운용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가계동향조사가 개별가계의 자산과 부채규모를 모두 조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자가계의 자산의 운용을 명확히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본 연구 결과 가계의 특성변수들이 가계의 적자여부를 결정짓는데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의 경제활동과 관련이 있는 변수들이 중요한 변수로 밝혀졌는데, 가구주가 무직이 아닌 근로자 또는 비근로자인 경우, 맞벌이가계,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각 적자가계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다. 먼저 가구주가 직업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서 일정한 소득을 갖고 지출을 관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획된 소득과 지출패턴을 갖고 있어 가계의 예산에 맞춰서 지출하는 것이 더 가능한 집단으로 이들 집단이 적자가계에 속

할 가능성이 적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계의 소득원이 하나 이상인 맞벌이 가구가 상대적으로 적자가계를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가계의 소득과 지출흐름을 원활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생계유지형 적자가계와 보건의료비과다지출형 적자가계는 맞벌이가구의 비중이 여타 유형에 비해 현저하게 적었고 전체소득이 절반정도에 머물러 여성의 취업이 가계의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가계소득과 모든 적자가계 유형은 부(-)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밝혀져 가계의 소득 부족이 결국은 가계를 적자로 이끄는 것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소득보다 소비성향이 차이로 해석한 선행연구의 결과(S. Yang, 2010)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여섯째, 가계의 내구재보유는 가계의 적자 가능성을 높이고 있었다. 특히 자동차소유는 모든 적자가계유형에 대해 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들(S. Hwang & W. Jeong, 2013; S. Lee & Y. Sung, 2007; S. Yang, 2010)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자동차를 사용하고 유지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결국 가계의 지출을 늘리고 있으며, 또한 자동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자동차를 소유함으로써 인해 부가적으로 다른 새로운 지출들까지 유발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유사하게 주택소유도 대부분의 유형에서 양(+)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가계가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현금흐름에 제약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면, 생계유지형 적자가계에서만 유일하게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생계형 적자가계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 매월 지출되는 월세 등 주거비 관련 지출이 적자의 원인인 것으로 보이며, 필수재적 성향이 큰 지출을 위해 생긴 적자 문제라는 점에서 만성적자가 우려되어 가계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 등이 필요해 보인다. 가계의 인적자본 역시 가계의 적자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 교육비 지출형 적자가계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 Yang(2010)이 가구주의 높은 교육수준이 자녀의 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주며, 이를 통해 가계의 적자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과 같은 결과이다. 가구주가 4·50대인 생애주기 단계 중 자녀학령기 가계의 경우 교육비과다지출형 적자가계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년기 가계는 생계유지형 적자의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과소비형의 가능성이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각 가계가 갖고 있는 특성변수들이 각 유형의 적자보유 여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보편적으로 모든 유형가계의 적자가계에 영향을 주는 변

수도 있는 반면, 특정한 유형에만 영향력이 있거나 혹은 영향력의 방향이 다르게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가계가 보유한 적자의 원인은 가계가 갖는 경제적인 특성과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가계의 적자는 가계의 부채증가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이다. 생애주기가설에서 말하는 평생소득을 고려하면서 행해지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적자가계가 있을 수도 있다. 30세 이하 가구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교통비과다지출형 적자가계는 이런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구매 등을 위해 야기된 적자는 일시적이고 흑자로 이내 복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집단이 적자가계라는 점에서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를 필요한 시기에 구매 할 수 있도록 재무교육과 재무설계를 받는다면 가계의 적자를 최소화시키면서 재무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교육비지출이 과다한 가계는 생애주기상 자녀학령기에 해당이 되는 집단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지출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선행연구(S. Lee, 2005)에서도 밝혀졌듯이 교육비는 장시간에 걸쳐서 지출된다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들이 계획한 시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재무설계와 교육이 뒷받침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재무설계와 교육은 가계가 필요이상의 과도한 지출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합리적인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을 것이다. 교육비과다지출형 적자가계가 점차 전체 적자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으며, 적자의 폭 또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0년에 비해 2010년의 평균 자녀수가 적어졌을 것까지를 감안한다면, 교육비지출로 인한 적자상황의 확대라는 문제는 더욱 심화된다. 또한 다양한 소득계층이 교육비형 적자가계에 속해있다는 점은 교육비에 지출되는 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대부분의 가계에서 해결해야 할 재무목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교육비지출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은 각 가계가 해결해야 하는 재무설계와 함께 정부의 교육정책이 함께 동반되어야 할 문제로 보인다. 따라서 적자가계에 대한 이해와 관련 정책은 적자의 원인 규명과 함께 탄력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가계의 적자는 생애주기상 단순한 현금흐름의 문제가 아니며 가계가 갖고 있는 재무설계와 재무교육의 부재 또는 잘못된 지출습관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노년층 가계가 생계유지형 적자가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생애주기 가설에 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오히려 은퇴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만을 확인하게 했다. 또한 60대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생계유

지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점은 현재 우리나라 노인 층의 은퇴자금 불충분하다는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노인의 은퇴준비상태를 고려해 볼 때 가계의 재무교육은 현재의 소비지출패턴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은퇴설계를 위한 합리적인 지출계획이 사전에 이루어져야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과소비형 적자 가계에서 30대 이하 가계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의 여지가 있다. 이들은 선택제적 성향이 강한 의류, 외식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지출구성비를 보인바 있기 때문에 가계부작성 등과 같이 지속적인 지출 통제가 필요해 보인다. 비교적 가구주의 연령이 젊은 가족형성기 및 자녀 양육기에 해당되는 집단이 많이 속해있다는 점은 재무교육을 통해 이들의 소비패턴에 변화를 준다면 가장 효과적인 교육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을 기대하게 한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생계유지형 적자가계는 26.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010년에 오면서 가계소득이 더욱 감소하고 있었고, 적자의 폭 또한 확대되었다. 2000년의 28.94%에 비해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2010년에 24.49%로 그 속도가 빠르지는 않았다. 가계소득의 40% 정도를 초과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가계경제수지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적자가구가 소비자교육과 재무설계를 통해서 가계수지를 개선할 수 있다면, 이들 집단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가계의 적자문제를 단순히 가계의 적자여부만을 살펴본 것이 아니라 소비지출패턴을 분석하여 적자의 유형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생애주기설의 관점에서 가계의 적자발생은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본 연구결과 가계의 적자 원인은 소득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과열된 우리나라 가계의 교육열 문제와 합리적인 재무목표 설정과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지출계획이 뒤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인간의 비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이 가계의 적자를 발생시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계를 위한 재무교육과 재무설계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00년, 2005년, 2010년 등 5년 간격의 자료를 분석하여 시간흐름에 따른 적자가계 특성의 변화를 보고자 한 것이었다. 2007-2008년에 발생한 금융위기는 가계 운영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2005년에 비해 2010년에 적자가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추이가 이후 계속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또한 일시적인 현상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2011년 이후 자료를 분석하는 작업이 추후에 필요해 보인다. 이는 가계수지가 거시

적 측면에서의 경제정책과 심지어 국제경제상황에 의해서도 적자를 포함한 가계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계적자는 유량적 개념에서의 가계수지 평가이며, 이는 현재 우리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로 연결되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지출현황 분석을 통한 가계적자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가계적자가 비합리적인 경제행위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계가 지닌 자산규모 또한 고려대상이어야 한다. 연구결과 중 과소비형적자의 경우 자산의 현금화를 통해 적자를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이는 생애주기설에서 설명했듯이 축적된 자산을 현재소비에 반영하는 합리적 경제행위일 수 있다. 따라서 합리적 적자와 비합리적 적자, 합리적 부채와 비합리적 부채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자산 부분에 대한 포괄적 분석이 향후 적자가계 연구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Ando, A., & Modigliani, F. (1963).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Aggregate implications and test. *American Economic Review*, 53(1), 55-84.
- Bae, M., Hanna, S., & Lindamood, S. (1993). Patterns of overspending in U. S. household.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4, 11-31.
- Blanc, J. L., Porpiglia, A., Teppa, F., Zhu, J., & Ziegelmeier, M. (2014). *Household saving behavior and credit constraints in the Euro area*. Discussion Paper (No. 16/2014). Frankfurt, Germany: Deutsche Bundesbank.
- Charles, K.K., Li, G., & Schoeni, R. (2006). *Overspending-Who, why, and how?* National Property Center.
- Cho, I. (2005). *SAS lecture and statistic consulting*. Seoul, Korea: Youngjin.
- Friedman, M. A. (1957). *A theory of the consumption func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wang, S., & Jeong, W. (2013). *An analysis of economic status of deficit household*. Discussion Paper Series (No. 2013-11). Seoul, Korea: The Korea of Bank.
- Hwang, E. A., & Lee, S. S. (1999). A study on the consumption expenditure and patterns of urban household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7(8), 117-132.
- Joung, Y. (1992). Expenditure patterns of households.

- Journal of Consumer Studies*, 3(2), 1-14.
- Ju, I., & Yang, S.-J. (1997). Household expenditure patterns and its characteristic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5(1), 277-290.
- Kim, K., & S. Lee. (1990). Subjective economic outlook and consumption pattern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1(2), 15-31.
- Lee, J. & Yang, S. (2014). Analysis of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of households with a negative cash flow across income groups in 2000, 2005, and 2010.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2(5), 125-143.
- Lee, S. (2005). An analysis on the household economic structure of the indebted overspending households: Evaluation of seriousness of economic problem of indebted overspending household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16(1), 73-95.
- Lee, S. L., & Sung, Y. A. (2007). The expenditure pattern of the indebted overspending household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5(10), 45-57.
- Lytton, R., Garman, E., & Porter, N. (1991). How to use financial ratios when advising client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 3-23.
- Moon, S., & Joung, S. (1995). Study on the comparison of consumption patterns between single parents and parent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6(2), 53-65.
- Park, M. H., Lee, S. S., & Bae, M. K. (1996). Overspending of wage-earner households in Korea-Application of financial ratio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4(5), 209-222.
- Park, S. M., & Kim, Y. S. (1992). An analysis of the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structure by the Korean economic-development plan year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0(2), 1-18.
- Park, J. (2007). The average propensity to consume of the lowest income groups in South Korea and Japan. *Weekly Financial Brief*, 16(12), 8-9
- Statistics Korea (2013). *Consumer Price Index*. Retrieved from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A](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A).
- Sung, Y.-A. (2008). A dynamic analysis on the household deficit. *Journal of Consumer Studies*, 19(2), 115-134.
- Sung, Y.-A. (2013). Cluster analysis for the consumption expenditure patterns of one-person households of different age group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24(3), 157-181.
- Won, J. (2003). The living status of deficit and surplus households in the post-crisis era. *Health Welfare Policy Forum*, November, 19-35
- Yang, S.-J. (1991). Study on the consumption patterns changes of urban households (from 1970 to 1990). *Consumer Research*, 8, 54-67.
- Yang, S.-J. (2010). An analysis on the household characteristics and economic status of deficit households.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4(1), 135-159.
- Yoon, C. H. (1984). An analysis of the consumption expenditure patterns of city and farm families: 1963-1982.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2), 85-100.
- Yuh, Y. & Yang, S.-J. (2001). Differences in consumption patterns of various household typ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12(4), 65-81.
- <http://www.kostat.go.kr/>

접수일 : 2014년 10월 26일

심사일 : 2014년 12월 20일

게재확정일 : 2014년 12월 22일